민주, 서울시장 전략공천 결정

비대위 "송영길 등 배제 아냐"
강릉·춘천·대전서구 4곳도
윤호중 "아픔 있더라도 과감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 전 대표를 비롯한 기존 예비후보 간 경쟁을 통해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을 누르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서울,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원 강릉시와 춘천시, 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선정했다. 앞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서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후보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민주당이 서울에 '전략 공천'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략선거구 지정'을 했다며 "전략선거구 지정은 전략 공천과 동일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전략선거구 지정은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전략공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기존 예비후보를 포함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지로 선정된 지역에 신청한 후보자들을 포함해 우리 당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후보자를 물색할 것"이라면서 "이미 신청한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 전략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서울 전략지역구 선정을 통한 사실상의 '전략공천'으로 굳힌 데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최근 집단행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지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49명은 지난 11일 별도 모임 후 "서울시장 후보군에 파격적인 새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 대변인은 "서울이란 선거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선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대전 서구를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배경으로 "워낙 서구청장이 대전에서 매우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전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략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의 전제조건인 당직 사퇴 시한(3월 12일) 넘겨 사퇴한 인사 중 송영길(인천 계양을) 전 대표와 맹정섭(충북 청주시) 전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 추가 구성안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백혜련 위원장과 박상혁, 서동용, 전용기, 강용주, 김민재, 서연희, 김진아, 황서윤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치개혁 하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앞에서 정치개혁 및 광주 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현역 지방의원 13명 포함 기초의원 출마자 25명 공천 배제

민주당 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한 현역 시·군의원 13명을 포함한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 25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현역 단체장 4명을 포함해 35명에 대한 정밀 검증도 진행중이라 추가로 '컷오프'되는 신청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당 공천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에 대한 정밀검증 결과, 25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전남도당은 이들의 배제 사유를 "상습적 음주운전·도박·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 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전날까지 공천배제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 등 모두 41명이 공천배제됐다.

전남도당 공관위는 추가로 현역 기초단체장 4명·광역의원 6명·기초의원 2명 등을 포함해 모두 35명의 신청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계속 벌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이용섭, 기후위기 대응 등 11대 과제 실현 노력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대응 광주시 11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대응 정책이행 협약서'에 서명하고, 광주시 폐기물정책과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협약을 통해 광주형 기후일자리 2만3000개 이상, 공공조달·펀드를 운용한 지역사회적 경제 지원 및 활성화,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 장록습지 등 보호구역과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연구와 선제 조치를 통해 보호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 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종석)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센터 기능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및 노동여건 개선 ▲통합아동돌봄 시범사업 추진 ▲복지 민관정 협치 활성화 ▲지역아동 이용 체계 개선 및 운영비와 프로그램 기능 강화 ▲스포츠·예술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급식·교육 등 사회돌봄 영역 일자리 지원 체계 강화 등이 논의됐다.

강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 위기에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좋은 일자리의 출발은 좋은 복지다. 지역아동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권위주의 문화 혁신할 것"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도지사 후보는 13일 "권위주의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지사가 된다면 권위주의 문화 혁신 TF를 구성해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일제 문화, 군사 문화, 왕조 문화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법률, 제도, 의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머슴이 되겠다던 선출직들이 높은 단상에 앉아 주민들을 내려다 보는 행사장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도지사가 짧은 인사말 하려고 행사마다 찾아다니는 관행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혁신 과제로 단상, 인사말, 의전, 시찰, 귀빈, 소개, 도열, 간담회, 보고, 의사결정, 감사, 인사문화 등 12개 분야를 제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정선 "자사고 유지·일제고사 부활 반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자사고 유지와 일제고사 전면 부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기반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사고의 경우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적 성과가 선발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제고사의 경우 모든 학생을 동일한 잣대로 줄을 세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부활에 반대하다"며 "성적에 의해 소수 학생이 성공하는 경험보다 모든 학생이 자기의 적성과 장점을 살려 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정시 확대 정책은 공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교육이 발달한 수도권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 예비후보, 전군민 생활공약 발굴 나서

김준성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13일 '군민 행복 프로젝트'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공약' 발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면서 "군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거사무소로 제공하면 공약집에 반영하거나 제안사항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읍·면, 연령, 계층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공약팀'을 가동해 운영 중"이라며 적극적인 공약 제안을 요청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